

고하 송진우의 민족운동 업적과 발자취 조명 학술회의 열려

2024년 2월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는 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3·1운동에서 건국운동'을 중심으로 송진우의 민족운동을 재조명했다. 학술회의는 '한국 민족운동사에서 본 고하 송진우'(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재단 이사장), '자유와 통합, 민주와 공화: 21세기를 위



한 송진우의 사상과 실천'(박명림 연세대 교수), '자유민주의 독립국가를 위한 송진우의 사상과 헌신적 실천'(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남희숙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강원택 서울대 교수, 김명구 YMCA월남시민문화연구소장이 맡았다.

고하(古下) 송진우(宋鎭禹)는 중앙학교 교장으로서 3·1운동을 주동했고,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혹심한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민족정신을 고취했다. 해방 후 한국민주당 수석총무로서 한민족의 진로를 모색하던 중 1945년 12월 30일 훈탄에 서거하였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다.

